

금강이 만든 육지 속 섬마을, 방우리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금산군 부리면에 있는 육지 속 섬마을 방우리를 아십니까?

방우리는 전북 무주와 충북 영동, 충남 금산이 만나는 곳에 방울처럼 매달려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오지마을이다. 행정구역은 충남 금산군 부리면이지만 정작 금산에서는 이 마을로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 물론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에서 방우리까지 이어지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트레킹 코스가 있긴 하지만 두 번의 도강과 없는 길도 만들어야만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다.

방우리를 찾아가는 방법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나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오지길래 내비게이션에도 안 찍힐까' 하며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방우리로 가는 길은 전북 무주읍을 거쳐 돌아가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생활권도 금산이 아니라 무주다. 무주로 시장을 보러 가고 학생들은 무주로 통학한다. 심지어 이 마을은 충남도 국번(041)이 아닌 전북 국번(063)을 사용한다.



〈큰방우리 쪽에서 바라 본 촛대바위〉

무주읍 내도리 앞섬대교를 지나자마자 나오는 앞섬마을에서 좌회전해서 비포장도로를 10분쯤 달리다보면 잠시 차 시동을 끄고 쉬어야만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촛대바위와 염재다. 즉, 방우리는 촛대바위를 지나자마자 직진하면 도착하게 되는 큰방우리와 우측 가파른 비탈길을 넘어가면 보이는 농원(일명 '작은방우리')으로 나뉘는데, 그 비탈길이 바로 '염재'다. 촛대바위는 방우리

로 들어가는 오른쪽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20여m 높이의 뾰족하게 솟아오른 바위덩어리로 방우리를 찾는 이방인을 처음으로 반기는 이정표가 된다.

염재는 농원으로 넘어가는 경사가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언덕으로, 염재에서 농원까지 이어진 울창한 숲과 절벽이 만들어낸 거대한 병풍은 방우리의 빼놓을 수 없는 절경이다. 절벽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금강의 물줄기와 하얀 모래사장이 두말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해 보였다. 가을로 접어든 9월, 필자가 찾아온 날은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강물도 불어나 있었지만 겨울처럼 맑은 금강은 질푸른 산세와 숲털같은 구름을 가득 담고 있었다. 아마도 처음 이곳을 찾은 여행객들 대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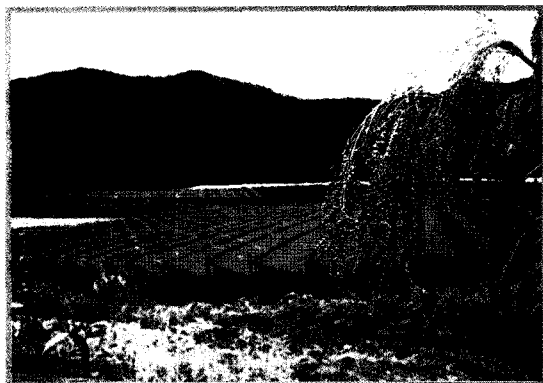
〈염재 정상에서 바라 본 금강의 절경〉

충남 마을 기행 1 - 방우리 마을

기대 이상의 놀라움과 감탄사를 연발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처럼 말이다.

이처럼 온전히 자연이 보존된 것은 워낙 오지인 까닭이 아닐까 하면서도 객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된다. 그나마 지금은 차 한 대 지나가기에도 벽찬 좁은 비포장길과 시멘트 길이 속세와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소통로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바깥나들이를 하려면 강을 건너고 산길을 넘어 5km 이상을 걸어 다녀야 했다고 한다.

방우리는 금강의 최상류지역(전북 장수로 익히 알려져 있음)으로 충청의 젓줄이 시작하는 마을이다. 현재 큰방우리 13가구와 농원 9가구 등 총 22가구 40여명 정도가 배, 고추를 가꾸고 인삼밭을 갈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흔한 구멍가게 하나가 없다. 생수라도 한 병 사들고 들어올 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다.



〈큰방우리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인삼〉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부리면 우체부가 편지배달은 기본이고 마을주민 심부름도 한단다. 워낙 오지다 보니 물건을 사러 장에 가는 일이 만만치 않아 '조미료', '낫', '호미' 등을 사달라고 심부름을 종종 시킨다는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두 마을 사이 산 밑으로 터널을 파 끌어들인 강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얻는 소수력발전시설도 있다.(유역변경 소수력발전)

먼저 필자는 농원을 들렀다가 큰방우리로 향하는 일정을 잡았었는데, 앞섬마을 입구에서 방우리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시던 할머니께 여쭙어보았다. "여기가 방우리로 가는 길이 맞나요?" 그런데 마침 할머니 한 분이 마침 큰방우리로 가야한다며 "총각! 태워주면 안 될까? 큰방우리에 사는 언니집에 가야되는데 차가 없어 못 들어가" 필자



〈큰방우리로 들어가며 바라 본 금강과 어우러진 산과 절벽의 모습〉

는 총각이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흥해 갈라지듯 열리며, 얼른 타시라고 기분 좋게 문을 열어드렸다. 그러면서 일정은 자연스럽게 큰방우리 먼저 들르게 되었다.

할머니는 언니네 집에 옥수수를 갖다 주고 고추 따는 걸 도와주려 하셨단다. “동네 둘러보고 여기 집에 들어서 찐 옥수수 먹고 가요, 꼭!” 편자는 할머니 말씀에 알겠다며 본격적으로 큰방우리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큰방우리 입구에는 ‘범죄없는 마을’이란 뜻말이 붙어있었지만, 솔직히 이런 마을에 무슨 범죄가 있을까 하는 반문이 들기도 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오지마을 중 하나라고 하기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감도 든 것이 사실이었다. 연세드신 할머니·할아버지만 살고 계신 13가구 이외 오래도록 살지 않은

충남 마을 기행 1 - 방우리 마을



〈큰방우리 입구〉



〈오래전 집 주인을 잃어버린 빈집을 차지한 호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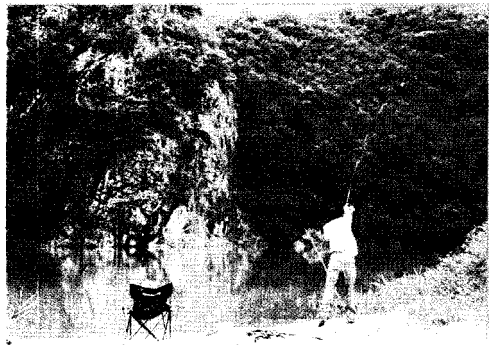
빈집이 꽤 많이 보였다. 흙벽은 낡아 무너져있고 마당엔 호박 덩쿨이 제집인 양 한자리 차지하고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경로당이 있지만 주민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처럼 대부분 무주 5일장에 맞춰 생활용품과 식료품, 농기구 등을 사러 나갔다고 하셨다.

오랜 시간 금강이 둘러친 큰방우리는 배산임수 그 자체였다. 웅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아래로 논과 밭이, 그 밑으로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절세의 산과 절벽이 그림같이 둘러쳐져 있는 형상이다. 소리를 지르면 맞은편 절벽에 부딪힌 소리는 다시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마침 금강변까지 나가보니 낚시꾼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흘러가는 세월을 낚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곳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도 바로 낚시꾼들의 입소문이었다고 한다.

대략 1시간 정도 마을 전체를 둘러본 후 아까



〈큰방우리 앞 금강에서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

만난 할머니의 작은 배려에 보답코자 말씀하셨던 집에 들렀다. 아~ 그런데 이걸 정말 희한하고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바로 그 언니집이란 곳이 그간 방우리를 소개한 여러 언론매체에 단골로 등장하신 이순임(78) 할머니댁이었다.



〈60년째 방우리에 살고 계신 이순임 할머니(오른쪽)와 차로 모셔다 드린 할머니〉

“열여덟살 때 남편을 소개받을 때 결혼하면 전주에서 편히 살꺼라는 중매쟁이 말만 믿고 시집와 보니 방우리인겨~ 그때 속아서 60년을 살았 자녀” 하시며 너스레를 떠셨다. 주름진 얼굴에 환하게 퍼진 웃음에서 녹녹치않은 세월을 보내온 연륜을 엿보았다.

방우리는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들어와 정착했다고 한다. 먼저 큰방우리에 등지를 튼 다음 일부는 농원으로 이주하여 터를 잡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곳은 설가(家)들의 집성촌으로도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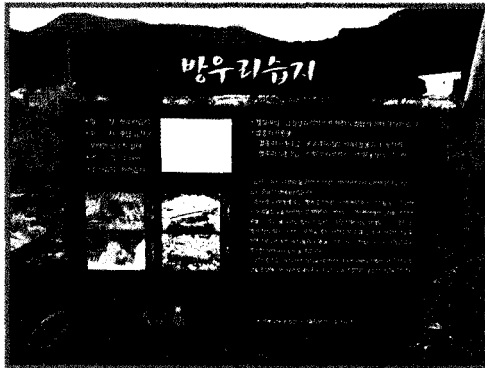
한데, 두 마을 총22가구 중 20가구가 설가다. 한편 강변 불모지를 개간해 논밭을 일군 이 마을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는 1963년 신영균과 최은희가 주연을 맡고 신상옥 감독이 연출한 영화 '쌀'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필자는 시간상 두 할머니와 더 이상 말동무를 해드리지 못하고 건강하시라는 인사와 함께 농원으로 향했다.

금새라도 절벽에서 돌더미가 떨어질듯한 염재를 넘어가니 산과 강으로 둥글게 둘러쌓인 분지처럼 생긴 곳에 인가가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바로 농원이다.

농원 입구에 도착하자 '방우리습지'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 방우리 일대 약2km² 넓이의 방우리습지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멸종위기의 수달, 감돌고기, 수리부엉이, 돌상어 등 수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충남 마을 기행 1 - 방우리 마을



〈 방우리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습지로도 유명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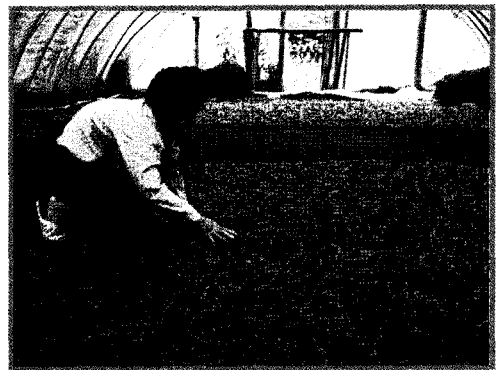
〈금강이 휘둘러 만들어진 퇴적토의 모습〉

이곳도 큰방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빈집이 많았으며 마을을 둘러보니 한적하고 평화롭다는 표현보다 적막함이란 단어가 먼저 떠올랐을 정도다. 9가구밖에 없는 농원을 둘러보다가 어렵사리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신 할머니 한분을 만날 수 있었다. 역시 설가 집안으로 시집온 임애순(70) 할머니였다.

고추 말리는 일을 잠시 도와드리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사진을 한 장 찍어드리고 싶다고 하니 “꼬부랑 할망구 찍어서 뭐하! 우리 아들이 보면 안 되는데!” 하신다. 그러고 보니 여기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껏 자식들 키워 모두 도회지로 공부시켜 내보낸 분들이 대부분이다.



〈농원의 빈집 마당이 나무덩쿨로 꼭 차 있는 모습〉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 임애순 할머니〉

“추석이나 되어야 손주놈들 재롱도 볼 텐데...” 하시며 며칠 남지 않은 명절을 내심 기다리시는 눈치였다.

임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 방우리가 많이 알려져서 외지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다고 한다. 물놀이, 민물낚시, 마을 탐방 등이 대부분의 이유다. 하지만 이곳은 민박집 하나 없고, 그 흔한 구멍가게조차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숙식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잠시 머물러 가는 여행객들이 많다고 하셨다. 올해는 그마저도 찾는 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방우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역사속의 마을로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방우리에서 수통리까지 이어진 적벽강〉

방우리, 특히 농원에서 가장 절경을 자랑하는 곳은 적벽강 지대다. 수십에서 수백 미터 높이로 솟은 절벽이 강가를 따라 2km 정도 이어지는 적벽강은 방우리에서 시작해 하류인 수통리까지 이어진다.

높은 절벽이 노을에 반사되어 붉은 색을 띠다고 하여 적벽강이요, 불타는 듯한 가을 단풍이나 저녁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인다고 해서 적벽강이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적벽강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쉽지않은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모험심이 요구된다. 방우리에 한번이라도 찾아온 여행객은 필자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특히나 나 홀로 왔다면 더 더욱 그렇다. 바로 입은 닫히는 대신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방우리를 둘러보는 4시간 동안 할머니들과 나는 30여 분간의 대화를 제외하곤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농원 앞 금강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

충남 마을 기행 1 - 방우리 마을

말이 필요치 않았다는 게 옳다. 여기저기 지저귀는 새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유유히 흘러가는 금강과 깎아지른듯한 절벽, 그리고 짙푸른 녹음에 저절로 흠뻑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은 인간을 보듬으며 조화를 이룬 오지 마을 방우리는 아직까지도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필자는 방우리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권하고 싶다. 시골마을의 정겨움과 포근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고, 가족과 함께 인적없는 마을에서 무념무상의 휴식을 취해도 좋겠지만, 촛대바위부터 큰방우리와 농원까지 혼자 걸으며 나를 찾아 떠나는 사색의 시간으로 할애해도 좋겠다.

[여행 수첩]

● 후회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고 가세요.

방우리는 딱히 그늘을 찾기 어렵다. 가족끼리 방우리를 찾았다면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텐트나 파라솔 하나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좋다(여름이라면 더욱). 또한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과 물 등을 준비하는 게 후회없다. 또 민박집 등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는 것보다는, 금산이나 수통리 적벽강 근처, 혹은 무주에 숙소를 정하고 이곳은 고즈넉한 마을과 주변풍경을 감상하는 드라이브 혹은 트레킹 코스로 삼는 것이 좋다.

● 찾아가는 길? 만만하지 않아요

초행자에게 방우리는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내비게이션도 찍히지 않고, 일부 휴대폰은 시계기능에만 충실하다. 대천영고속도로 무주 나들목을 빠져나온 다음 사리채터널을 지나 우주읍내로 들어간다. 반딧불주유소 앞 3거리에서 좌회전(내도리 방면)해서 3~4분쯤 달리면 앞삼다리가 나온다. 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좌회전하여 약 2km 지점의 길림길(촛대바위)에서 직진하면 큰방우리, 우회전해서 염재를 넘어가면 농원(작은방우리)이다. 걷기를 매우매우 좋아하고 방우리를 제대로 보길 원한다면 촛대바위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둘러보길 권한다.

● 맛있는 여행을 원한다면?



무주에서 방우리로 가다보면 앞섬다리 초입에 큰 식당 3개(큰손식당, 섬마을, 강나루)가 있다. 어딜 들어가도 음식차림과 맛은 비슷하다. 제대로 된 매운탕과 어죽맛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들러보길 권한다. 금강에서 직접 잡아 요리한 빠가사리·쏘가리탕, 빠가어죽, 그리고 도리뱅뱅이 등이 인기 메뉴다. 필자는 보기에도 양이 많아 보이는 어죽(사진) 한 그릇을 똑딱 해치웠다.

● 주변 볼거리? 인간적으로 여기는 들러 보아요

금산은 큰 일교차 등 기후여건이 인삼재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금산 인삼은 타 지역 삼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단단하고 순백색을 띠고 있으며 사포닌 함량이 뛰어나 대한민국 대표 인삼으로 불린다. 금산인삼종합전시관과 인삼약초거리에서 질 좋은 인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때를 잘 맞추면 장터 구경도 실컷 할 수 있다(2, 7일).

또 하나는 금산 칠백의총이다. 임진왜란 때 금산성 전투에서 의병장 조헌을 비롯해 영규대사 등 칠백여 명의 의병이 왜군 1만 5천명을 맞아 선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전원이 전사하였다. 이때 조헌의 제자들이 유해를 수습하여 이들을 모두 한 무덤에 모신 것이 칠백의총이다.

또 금산을 지키는 수호산인 진악산 자락에 위치한 보석사는 신라 때 창건한 고찰로 절 앞산에서 금을 캐내어 불상을 주조하였다는 데서 이름 지어졌다. 특히 입구부터 시작되는 삼나무 숲과 천연기념물 제365호인 보석사 은행나무가 볼거리다. 은행나무는 나라의 번고가 있을 때마다 소리 내어 울었다고 전해지는 마을의 수호신이다.